



#마음 관련 속담 따라쓰기

겉으로 보이는 얼굴과 숨은 속마음, 쉽게 변하는 감정, 형식보다 중요한 정성, 나이와 환경을 넘어서는 의지를 담은 속담이 모여 있습니다.

1 보기

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.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.

3 혼자 쓰기

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.

수록 속담 20개 · 이 태그 26개 가운데 관련도 높은 순

01	낮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	2쪽	11	여든 살이라도 마음은 어린애라	12쪽
02	마음이 열두 번씩 변사를 한다	3쪽	12	천 리 길도 십 리	13쪽
03	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	4쪽	13	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	14쪽
04	거지는 논두렁 밑에 있어도 웃음이 있다	5쪽	14	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	15쪽
05	한집 살아 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을 안다	6쪽	15	제 마음에 괴어야 궁합	16쪽
06	천 길 물속은 건너 보아야 알고 한 길 사람 속은 지내보아야 안다	7쪽	16	방앗간에서 울었어도 그 집 조상	17쪽
07	두 계집 둔 놈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	8쪽	17	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	18쪽
08	마음처럼 간사한 건 없다	9쪽	18	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	19쪽
09	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제 정성	10쪽	19	동풍 안개 속에 수숫잎 꼬이듯	20쪽
10	같은 늙어도 속은 새파랗다	11쪽	20	백두산 까마귀도 심지 맛에 산다	21쪽



#마음 모아보기

이 주제 속담 더 보기



연습 20쪽 ·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,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 글자의 모양과 간격을 살피며 천천히 써 보세요.



1 / 20

낮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

사람의 얼굴은 알지만,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낮	은			알	아	도
마	음	은		모	른	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낮	은			알	아	도
마	음	은		모	른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 / 20

마음이 열두 번씩 변사를 한다

마음이 이랬다저랬다, 아주 쉽게 여러 번 바뀐다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마 음 이 열 두

번 씩 변 사 를 한 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마 음 이 열 두

번 씩 변 사 를 한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3 / 20

밥은 굵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

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밥 은 굵 어 도
속 이 편 해 야 산 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밥 은 굵 어 도
속 이 편 해 야 산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밥 은 굵 어 도
속 이 편 해 야 산 다



4 / 20

거지는 논두렁 밑에 있어도 웃음이 있다

돈이나 좋은 물건이 많지 않아도,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거	지	는	↓	논	두	렁	↓	밑	에
있	어	도	↓	웃	음	이	↓	있	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거	지	는	↓	논	두	렁	↓	밑	에
있	어	도	↓	웃	음	이	↓	있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	↓				↓		
			↓				↓		

중심 십자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써보세요.

마음



5 / 20

한집 살아 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을 안다

어떤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, 오랫동안 같이 살거나 힘든 일을 함께 겪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한	집	↓	살	아	↓	보	고	↓	한	배
타	↓	보	아	야	↓	속	을	↓	안	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한	집	↓	살	아	↓	보	고	↓	한	배
타	↓	보	아	야	↓	속	을	↓	안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↓			↓			↓		
	↓				↓			↓		



6 / 20

천 길 물속은 건너 보아야 알고 한 길 사람 속은 지내보아야 안다

아무리 깊은 물도 직접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만,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봐야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배대를 읽기

천	↓	길	↓	물	↓	속	↓	은	↓	건	↓	너				
보	↓	아	↓	야	↓	알	↓	고	↓	한	↓	길	↓	사	↓	람
속	↓	은	↓	지	↓	내	↓	보	↓	아	↓	야	↓	안	↓	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천	↓	길	↓	물	↓	속	↓	은	↓	건	↓	너				
보	↓	아	↓	야	↓	알	↓	고	↓	한	↓	길	↓	사	↓	람
속	↓	은	↓	지	↓	내	↓	보	↓	아	↓	야	↓	안	↓	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
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
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	↓	



7 / 20

두 계집 둔놈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

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는,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두	계	집	둔	놈	의		
똥	은	개	도	안	먹	는	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두	계	집	둔	놈	의		
똥	은	개	도	안	먹	는	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8 / 20

마음처럼 감사한 건 없다

사람의 마음은 자기에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마 음 처 럼

간 사 한 건 없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마 음 처 럼

간 사 한 건 없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9 / 20

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제 정성

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모습보다,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우	장	을	↓	입	고	↓	제	사	를
지	내	도	↓	제	↓	정	성		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우	장	을	↓	입	고	↓	제	사	를
지	내	도	↓	제	↓	정	성		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중심 십자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을 써보세요.

마음



10 / 20

걸은 늙어도 속은 새파랳다

몸은 나이가 들었지만, 마음과 생각은 젊은이처럼 활기차고 열정적이라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걸	은	↓	늙	어	도
---	---	---	---	---	---

속	은	↓	새	파	랳	다
---	---	---	---	---	---	---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걸	은	↓	늙	어	도
---	---	---	---	---	---

속	은	↓	새	파	랳	다
---	---	---	---	---	---	---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	↓				
--	--	--	---	--	--	--	--

			↓				
--	--	--	---	--	--	--	--



11 / 20

여든 살이라도 마음은 어린애라

나이가 많이 들어도,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여든 살 이 라 도
마 음 은 어 린 애 라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여든 살 이 라 도
마 음 은 어 린 애 라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여든 살 이 라 도
마 음 은 어 린 애 라



12 / 20

천 리 길도 십 리

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질 만큼 설레고 신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천		리		길	도		십		리
---	--	---	--	---	---	--	---	--	---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천		리		길	도		십		리
---	--	---	--	---	---	--	---	--	---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13 / 20

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

사람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이 착한지, 슬픈지, 정직한지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

눈	은		그		사	람	의
마	음	을		닮	는	다	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눈	은		그		사	람	의
마	음	을		닮	는	다	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4 / 20

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

마음속에 있던 걱정거리가 사라지면, 힘든 일도 쉽게 느껴진다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마 음 이 풀 어 지 면

하 는 일 이 가 법 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마 음 이 풀 어 지 면

하 는 일 이 가 법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5 / 20

제 마음에 괴어야 궁합

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,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가장 좋고 알맞은 것이라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제 마음 에
괴 어 야 궁 합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제 마음 에
괴 어 야 궁 합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제 마음 에
괴 어 야 궁 합



16 / 20

방앗간에서 울었어도 그 집 조상

남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, 장소나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방	앗	간	에	서	↓	울	었	어	도
그	↓	집	↓	조	상				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방	앗	간	에	서	↓	울	었	어	도
그	↓	집	↓	조	상				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7 / 20

사람의 속은 눈을 보아야 안다

사람의 진짜 마음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눈은 마음의 창문과 같거든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사 람 의 속 은

눈 을 보 아 야 안 다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사 람 의 속 은

눈 을 보 아 야 안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18 / 20

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

사람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사 람 은
조 석 으 로 변 한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사 람 은
조 석 으 로 변 한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사 람 은
조 석 으 로 변 한 다



19 / 20

동풍 안개 속에 수숫잎 꼬이듯

마음이 베베 꼬여서 심술이 가득 난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에요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동 풍 안 개 속 에
수 숫 잎 꼬 이 듯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동 풍 안 개 속 에
수 숫 잎 꼬 이 듯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동 풍 안 개 속 에
수 숫 잎 꼬 이 듯



20 / 20

백두산 까마귀도 심지 맛에 산다

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정을 붙이고 살면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

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

백	두	산	▽	까	마	귀	도
심	지	▽	맛	에	▽	산	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백	두	산	▽	까	마	귀	도
심	지	▽	맛	에	▽	산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				▽					
			▽			▽			

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.

보호자 확인 _____

